

데스크 시국



박석천 문화부장·편집국 부국장

국립현대미술관은 세계적인 현대미술 작품을 수집하거나 전시, 소장하는 국가 차원의 미술관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문화적 가치를 조형하고 구현하는 대표 문화기관이다. 1969년 경복궁에서 개관한 것이 시초인데 1973년 덕수궁석조전 동관으로 이전했다가, 1986년 과천 부지에 과천관이 완공됐다. 1998년에는 덕수궁 석조전 서관이 현대미술관 분관인 덕수궁미술관으로 오픈했으며, 2013년에는 서울 소격동에 복합 문화시설인 서울관이 건립됐다. 이로써 현대미술관은 수도권에 3개 미술관(과천관·덕수궁관·서울관) 체제를 갖춘다.

지역 분관 향방 가능할 수 없어

현대미술관 분관은 수도권 외에 타 지역에도 있다. 중부권에는 2018년 청주 연초제조장을 리모델링한 청주관 외에 오는 2026년에는 옛 충남도청을 개조한 대전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영남권에는 진주관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이 올해 반영됨에 따라 수년 내 개관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비해 현대미술관의 호남권 유치는 불확실하다. 수년째 헛바퀴만 돌리고 있어 자칫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치와 경제를 비롯해 모든 자원이 블랙홀처럼 수도권으로 집중되지는 상황에서 미술관마저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희망고문'이 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

추가로 1곳이 개관 예정인 중부권과 건립이 가시화되는 영남권과 비교해 광주 분관 향방은 가늠조차 할 수 없다는 데 있다.

27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분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타당성용역예산이 기재부 심사에 막힌데 이어 올해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광주 분관 유치는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동력을 잃었다. 이에 앞서 광주관 유치 관련 토론회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바 있다.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지원포럼), 민행비회원, 안도철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는 전문가를 비롯해 예술인, 지원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회 차원의 여론을 환기하는 자리였다.

류재한 지원포럼 회장은 광주관 필요성에 대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는 분관 유치를 통해 세계를 향한 문화예술의 창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 문화자산인 미디어아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변길현 하정음미술관장은 '광주관의 차별화 전략의 중요성'이라는 발제문에서 "광주관은 레지던시 특화형 미술관으로 건립, 기존의 청주관과 대전관의 수장센터 역할을 뛰어넘는 새로운 패러다임 미술관으로 건립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분관을 활용해 국제미술도시 광주를 K컬처 브랜드 도시로 견인하자는 취지다.

사실 지역의 광주분관 유치는 20여 년 전부터 제기됐다. 한때는 미술계를 중심으로 중앙초 부지를 분관으로 희망하기도 했지만 등문들 반대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이후 몇 차례 여론이 일어지만 구체적인 현실화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분관 건립안을 세우면

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2019년 이후 휴업 상태로 있던 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축 추진과 맞물려 난개발 논란에 휩싸이자, 시가 369억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민관정 위원회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미술관 부지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문화예술 허브'다.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자산 등을 지방분권 취지에 맞춰 분산한다는 의미일 게다. 현대미술관 분관 설치 여부에 따라 문화 인프라는 물론 국제미술계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적잖은 현안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허울뿐인 문화수도 광주의 실상

오비어라키라고 해야 할까. 최근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아특별)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제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조성위는 예술공간 조성, 문화콘텐츠산업 등과도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 제안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목적인다고 밝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역 시민단체는 "지역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함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아특별 개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시도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가의 보도처럼 회자되는 말 가운데 '예향 광주', '문화수도 광주'라는 수사가 있다. 분명 지역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말이지만 실상을 알고 나면 허탈해진다. 겉보기만 그럴듯한 브랜드 네이밍은 외화내빈에 다름아니다. 현대미술관 분관 하나 없는 문화중심도시 광주는 허울에 불과하다. 언젠쯤 '희망고문'이 범출가 싶다.

은폐칼럼

세계와 벽을 쌓는 한국 교육



송민석 수필가·전 대학 입학사정관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이 폭등한 원인 중 하나는 고액 학원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과외를 시키지 않으면 내 아이만 손해라는 강박관념이 학부모를 심리적,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한국인을 괴롭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과잉 경쟁이 아닐까 싶다. 남을 의식하는 비교 의식과 과잉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스트레스가 쌓여 간다. 사람들은 모바일과 소셜미디어를 달고 살면서 비교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값싼 음식과 명품 사진들을 올리고, 대놓고 남들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닌 세상이다.

11월 수능이 끝나고 나면 입시학원의 수능 배치표 한 장에 서울대의 대내부터 지방 전문대학까지 전국의 모든 대학과 학과가 한 줄로 세워진다.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온라인 강의로 명성을 크게 얻던 일타강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돼 요즘은 자산시장의 큰손으로 등장하

기도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반복해서 치르면 점수가 오르게 되어있다. 돈을 들여 스펙을 쌓고 컨설팅을 받으면 수시 합격 가능성은 그만큼 올라간다. 사교육과 입시 경쟁은 동전의 앞뒤처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부의 편중에 따른 양극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부의 대물림이 학력의 대물림을 가져오고 있다.

학생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되고 세습되어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교육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지금의 현실은 너도나도 모두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을 믿지 못하니 나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이다. 모든 사람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다. 사교육업체들은 이러한 불안을 마케팅 재료로 활용한다. 개미지옥처럼 앞만서도 빠져드는 것이 사교육의 선형학습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대입학원까지 생겨나는 등 의대 진학 열풍이 교육계를 휩쓸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부터 다닐 수 있는 의대 준비반을 운영한다고 한다. 선형학습은 엄청난 사교육비 증가와 학년별 수준에 맞는 발달을 저해하는 만고 병이다. "한국인은 자신을 다른 사회 구성원과 끊임없이 비교해 남을 이기는 것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행복 학자들의 지적이다.

덴마크나 핀란드가 행복한 나라 1위인 것은 모두 부자여서가 아니다. 경쟁보다 협동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의 존재성이 남과 비교되지 않으며, 실패하고 조금 못살아도 그 자체가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받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도서관과 학교 방문을 통해 10일 동안 북유럽 여행 중에 느낀 사회의 일부다.

우리 사회는 우수한 학생이 되려면 모든 과목에서 잘해 총점이 남보다 1점이라도 앞서야 한다. 몇몇 과목을 아무리 뛰어나게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21세기 현대 미술의 대가 '피카소'는 그림에는 어릴 때부터 특출난 재능을 보였지만 초등학교 시절까지도 읽거나 쓰기는 물론 덧셈·뺄셈까지도 서툴렀다고 한다. 그러나 스페인에는 그림 재능만으로도 입학할 수 있는 미술학교가 있었기에 '피카소'의 천재성은 그 뜻을 피울 수 있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진이 취급을 받아 낙오자로 일생을 마쳤을 것이다.

글로벌 시대에 기업은 세계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는 국경을 초월한 전 세계적 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국가라는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세계와 벽을 쌓고 우물만 개구리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 한판으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청소년들에게 강요할 것인가.

기고

클래식 입문, '시작이 반' 되려면



김승일 조선대 음악교육과 명예교수

클래식과 친해지기 위해 사람들마다 다양한 방법을 찾는다. 기초부터 꼼꼼히 챙기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 입문 과정을 중시하며 공부를 하는 타입일 것이다. 한데,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칫 '망친 잼타 창 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클래식 FM을 틀어놓고 시간 나면 들어 보겠다는 사람, 휴대폰에서 볼 수 있는 유튜브를 활용하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초보자들은 주위 환경에 흔들려 음악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혼자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무턱대고 시작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클래식 문화를 우선 접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소문난 좋은 연주회 티켓을 큰 맘 먹고 예매를 하는 것이다. 요즘은 클래식 인구가 늘어 유명 연주자의 티켓은 금방 매진되기도 일수

니 그걸 뚫고 예매에 성공하는 그 재미도 쏠쏠하다. 예매를 하고 나면 그날이 기다려진다. 마냥 기다리기에 지루하니 그 연주회에서 연주될 곡목을 유튜브에서 찾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연주회 날까지 틈틈이 들는다. 감흥이 오거나 말거나 유혹 받고 듣는다. 마치 남은 음식 처분하듯, 일단 무조건 삼킨다. 가끔 낯선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는 내키지 않지만 의외로 입맛에 맞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다행히 어느 연주회건 그날 연주될 곡은 두서너 곡쯤은 되니 돌아가며 들을 수 있어 다행이기도 하다. 이렇게 틈나는 대로 삼키다 보면 그 음악의 가치와 감동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음악이 낯설지 않게 될 즈음 드디어 '그날'이 온다.

성장을 하고 적어도 30분 전쯤 도착해 좌석권을 받고 로비의 이곳 저곳을 두리번거리며 다음 연주회 포스터도 보고 아는 사람과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로비에서 일종의 프롬나드(promenade)를 즐기다 연주 시작 15분 전쯤엔 입장해 의자에 깊숙이 앉아 공연장 특유의 분위기도 즐겨본다.

드디어 연주회가 시작되면 음악의 현상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공연장에 오기 전까지 꾸역꾸역 들었던 그 음악이 연주자에 의해 실현(實現)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눈앞에서 펼쳐지는 시각적 효과와 함께 그 음악들이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면 처음엔 신기하기도 할 것이다. 유튜브를 통해 조금은 익숙해진 터라 긴장과 함께 귀를 쫓긋하지 않을 수 없다. 알든 모르든 분위기에 빠져 음악에 집중하게 된다. 귀 기울이며 음악을 듣는 자신에 놀라워하며 음악의 흐름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연주가 끝나면 함께 환호하고 박수치며 열광하는 주변 사람들 틈에서 덩달아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든다. 어느덧 음악회는 끝나고 자신을 돌아보면 클래식 문화에 빠져들었던 자신이 조금은 뿌듯해지기도 하고 음악이 준 감동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냥 클래식 문화에 무턱대고 발을 들이길 잘 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음악회에 가기 위해 몇 달 동안 꾸역꾸역 삼키던 어떤 곡을 어디선가 우연히 다시 듣게라도 되면 이번엔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 것이다. 또 다음 연주회 일정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작은 발걸음, 다가오는 가을에 모두 한발씩 내딛어보면 어떨까.

社說

2026년 개통 지하철2호선 시민불편 최소화

광주시는 오랜 기간 지하철 공사와 각종 도로공사가 겹치면서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해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지하철 공사는 초대형 공사인 만큼 극심한 교통정체를 부르는 물론 공사 단계에 따른 잦은 차선변경, 도로 파손에 의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극심한 불편 탓에 이미 진행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감소해 교통수요가 적은데 굳이 지하철을 건립할 필요가 있는냐는 과거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내년 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공정률은 77%로 순항하고 있어, 완공 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치면 2026년 개통한다. 이에 따라 광주도시철도는 조만간 반쪽짜리 시민의 발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대중교통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그제 서구 풍양동 도시철도 2

호선 지하 정거장 공사현장을 언론에 공개하고, 지하작업 진행 상황 등을 브리핑을 초래해 시민들의 불만을 샀다. 지하철 공사는 초대형 공사인 만큼 극심한 교통정체를 부르는 물론 공사 단계에 따른 잦은 차선변경, 도로 파손에 의한 위험성 등으로 인해 운전자들로부터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개통이 2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시가 2호선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현장점검단'을 운영하고, 공사현장 공개 프로그램을 확대키로 한 것은 시기적절한 대처로 보인다. 남은 기간 광주시는 공사와 관련된 도로 및 신호 변경, 통행 통제 구간, 주행 속도 변경 등 다양한 정보를 자세히 공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길 바란다.

자차구별 제각각 다회용컵 정착 아직도 멀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가장 쉬운 방법 중의 하나는 일회용품 줄이기일 것이다. 이미 국민 스스로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개인컵을 사용하거나 커피 음료를 텀블러에 담고, 에코백을 사용하는 문화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하지만 정작 탄소중립을 정책적으로라도 실천해야 할 광주지역 지자체들의 노력과 의지는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5개구는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시책을 공동 추진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초열린 광주지역 구청장 협의회에서 서구청장이 '다회용 컵 제작 기준 표준안'을 건의했지만 반년째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각 구청들은 이미 1~3년 사이에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시책을 추진해왔다. 여기에 서구가 '다회용 컵은 구입처와 상관없이 가맹점 어디에서나 반납'하도록 한다는 소비자 편의 방안을 제

안해 5개 구청장 모두 찬성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21년 다회용 컵 제작·사용에 돌입했으며, 광주시와 동구는 2022년, 서구·남구는 2023년 다회용 컵 제작·사용을 시작했다. 북구는 다회용 컵 대신 자체 행사시 스테인리스 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각 구청들의 다회용 사용은 최근 1년 새 전년 대비 30~40%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회용 컵 사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사용처가 대부분 각 구청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카페 등으로 국한된 탓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는 다회용 컵 반납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구청들이 사용하는 다회용 컵의 규격을 단일화하고, 컵의 회수는 구입처와 상관없이 5개구 가맹점 어디에서든 가능토록해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통합 업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럭키비키 라는 말 들어봤어? 댐지 알아?" 며칠 전 자리였을 지나가던 선배가 불쑥 건넨 질문이었다. "들어는 본 거 같은데..." 분명 어디에선가 들어본 단어였지만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 말꼬리를 흐렸다. 질문을 한 선배의 목소리에는 '난 알아'라는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댐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조용하, 그리고 빠르게 검색창에 단어를 검색했다.

'단순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를 이야기할 때 쓰는 인터넷 용어'라고 설명되어 있다. 결국 '럭키비키'의 댐비 장원영에 의해서 탄생된 용어

로 행운을 뜻하는 영어 'Lucky(럭키)'와 장원영의 영어이름 'Vicky(비키)'를 붙여 사용했다. 두 단어의 라임이 맞아선 장과 함께 귀를 쫓긋하지 않을 수 없다. 알든 모르든 분위기에 빠져 음악에 집중하게 된다. 귀 기울이며 음악을 듣는 자신에 놀라워하며 음악의 흐름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연주가 끝나면 함께 환호하고 박수치며 열광하는 주변 사람들 틈에서 덩달아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든다. 어느덧 음악회는 끝나고 자신을 돌아보면 클래식 문화에 빠져들었던 자신이 조금은 뿌듯해지기도 하고 음악이 준 감동에 대해서도 한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냥 클래식 문화에 무턱대고 발을 들이길 잘 했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음악회에 가기 위해 몇 달 동안 꾸역꾸역 삼키던 어떤 곡을 어디선가 우연히 다시 듣게라도 되면 이번엔 마치 아는 얼굴을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 것이다. 또 다음 연주회 일정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지도 모른다.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하나씩 만들어 가는 작은 발걸음, 다가오는 가을에 모두 한발씩 내딛어보면 어떨까.

였던 긍정적인 대화들은 온라인을 통해 퍼져갔고 MZ 세대는 물론 정치인이나 기업들까지 강연 사례로 이용할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원영적 사고'라는 말도 등장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도 이 또한 행복에 이르는 과정이며, 무엇을 하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결국 나에게 행운이라는 '원영적 사고'는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시사고양 프로그램 EBS 지식채널e에서 지난 6월19일 다른 '오히려 좋은 원영적 사고' 편에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세로토닌과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출되어 정상적인 대사를 즐겁게 하며 실제로 낙관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19% 더 오래 지 동독성이 강해 MZ세대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행어가 돼 있는 모양새다.

"뺑을 사러 갔는데 앞사람이 모두 사가 버리는 바람에 (기다렸다가) 갓 나온 뺑을 사먹게 됐지 뭐야, 완전 럭키비키잖아', '연습 끝나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온 좋게 딱 적당하게 물이 반 정도 남아 있었어. 완전 럭키비키잖아' 장원영이 보

/이보람 예향부 차장 boram@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 note about the newspaper's commitment to providing quality news.